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장폐기물감량 성과 확산대회' 개최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지난 한 해 사업장폐기물감량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업장에 대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감량성과 및 기법 등의 확산·전파를 위해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성과 확산대회를 개최했다.

금번 확산대회는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으며 사업장폐기물감량 우수사업장에 대한 현판 및 표창장 수여, 폐기물감량 우수사례 발표, 감량화 가이드 기법 교육 등이 실시됐다.

폐기물감량 우수사업장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성과 및 경영층의 폐기물감량 의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평가를 거쳐 동국무역(주) 등 6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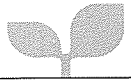
특히,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동국무역(주) 합섬3공장(경북 칠곡 소재, 대표자 박문규)의 경우는 실걸이 공정 자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섬유 발생량을 39% 저감(년간 660톤 저감)하여 연간 폐기물처리비용 715백만원을 절감하는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년

도에 이어 2년연속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정부포상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정부 관련자금 우선지원, 사업장 검사 면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신문 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및 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또한 동 확산대회에서는 우수사업장의 폐기물감량 우수사례 발표 및 섬유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폐기물 감량 가이드기법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폐기물감량 선진기술에 대한 공유·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영시스템의 혁신과 공정개선 등 자발적인 폐기물감량의지로 자원순환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 또한 사업장의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런 일환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사업장의 폐기물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종별 감량화 가이드 기법 등 폐기물최소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폐기물 감량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 환경부,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분진의 위해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현실적으로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적정분류가 어려운 폐석면의 분류기준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등이 보다 강화된다.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뿔질포함)로 성인의 악력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폐석면)으로 분류(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석면의 해체 및 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와 분진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되, 석면 함유량이 미미(1%미만)하고 현실적으로 고형화 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석면폐기물)로 분류 ▲폐석면의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기습조치를 한 후 운반 하도록 함.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2중 포대에 밀봉된 상태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 가능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소각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

또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축주

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분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이 제정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폐기물 관리 매뉴얼(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에 안내하고, 지자체·지방노동관서·지방환경관서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석면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일반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으로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상당량 감축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약 8% 정도의 이산화탄소(CO<sub>2</sub>) 감축효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CO<sub>2</sub> 삭감효과 분석 연구' 용역사업(KEI 수행)을 통해 확인했다.

금번 연구는 일반 대기오염물질(SO<sub>x</sub>, NO<sub>x</sub> 등)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의 부수적 저감효과를 처음으로 계량화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확보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CO<sub>2</sub> 배출저감 효과는 연간 약 825만톤(2014년 기준)정도로서 수도권 지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약 1억톤)의 8%정도로 산정됐다.

이중,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저 NO<sub>x</sub> 버너 교체, 저공해 연료전환 정책 등에 따라 전체 삭감량의 약 86%인 708만톤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유차의 청정연료 전환 등 이동오염원 분야에서 777천톤으로 약 9%, 집단에너지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면오염분야에서 397천톤으로 약 4.8%가 삭감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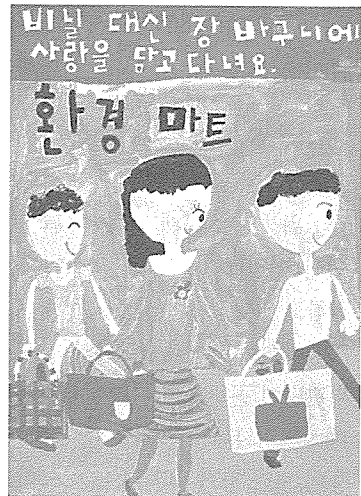
이번 연구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CO<sub>2</sub> 저감효과를 산정하였으며,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산정에서 제외했다.

자동차 및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교통수요 관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도시관리 등으로 인한 저감효과를 고려할 경우 CO<sub>2</sub> 저감량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관리공단, 제3회 「환경보전 포스터 컨테스트」 수상작 선정

환경보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고취와 더불어 환경보전실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래 환경보전의 주역이 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3회 「환경보전 포스터 컨테스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환경보전 포스터 컨테스트」는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



대상 - 비닐 대신 장바구니에 사랑을 담고 다녀요(새서귀초등학교 문지현)

는 내용, 환경보전 실천방안을 제시한 내용, 환경 보전 실천이 주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나타내는 내용을 소재로 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9점, 동상 9점, 입선 15점 등 총 36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대상 수상자의 지도교사에게는 환경부장관 공로장이 수여됐다.

공모결과, 초등부 252점, 중등부 174점, 고등부 74점 등 총 50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심사결과, 새서귀초등학교 문지현 학생의 작품(작품명 : 비닐 대신 장바구니에 사랑을 담고 다녀요, 지도교사 : 김수자 교사)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금상은 각각 안화중학교 고상미 학생의 작품(작품명 : 내가 버린 쓰레기 나에게 돌아온다)과 낙생고등학교 소여정 학생의 작품(작품명 : 아이들의 밤 하늘에 별을 돌려주세요)이 선정됐다.

환경문제와 인식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것을 대변하듯, 이번 포스터 컨테스트



에서는 공모대상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진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고 참신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출품됐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수상작을 활용하여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전시회 등을 가질 계획이며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포스터 컨테스트 추진을 도모 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건설환경분야 '환경성' 대폭 강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설환경분야에서도 '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을 마련,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 1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8 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2차 계획(2007~2011)은 1차 계획(2001~2005)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과제수가 너무 많아서 추진성과가 미흡했던 것을 거울 삼아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및 실현가능한 사항 위주로 중점을 뒀다.

우선 3대 실천 목표로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7대 추진 전략과 14대 중점과제를 제시해 1차 계획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건설공사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단계까지 환경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관규 박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에 발맞춰 건설환경분야에서도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건설업자와 시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환경 평가에 대한 지표와 지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환경관리협의회 사원희 회장은 "건설환경인력의 확충을 위해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환경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건설현장에서도 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사비의 2%에 불과한 환경관리비를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박사는 "건설폐기물은 우선 발생억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저장 기술 및 지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90%이상이 골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건설환경팀 권기철 사무관은 "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은 각종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골재로 활용하는 등 건설환경선진화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계획이 추진될 경우 친환경건설이 빠르게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